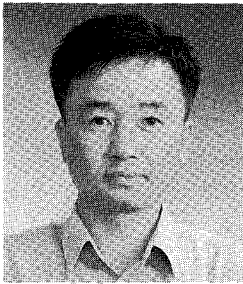


국내 종계 적정 수수 50만수대 이하로 유지되어야...



주 재 진
(한국양계TS(주) 영업이사)

국내의 채란계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난가가 생산원가 이하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채란농가 뿐 아니라 산란계 부화장도 적자폭이 늘어나 생존여부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현재, 계란 소비는 늘지 않고 노계도태 지연 등으로 계란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난가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계란 생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산란종계 사육수수이므로 현재의 산란 종계업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산란종계업의 현황

1) 산란 부화장과 품종의 판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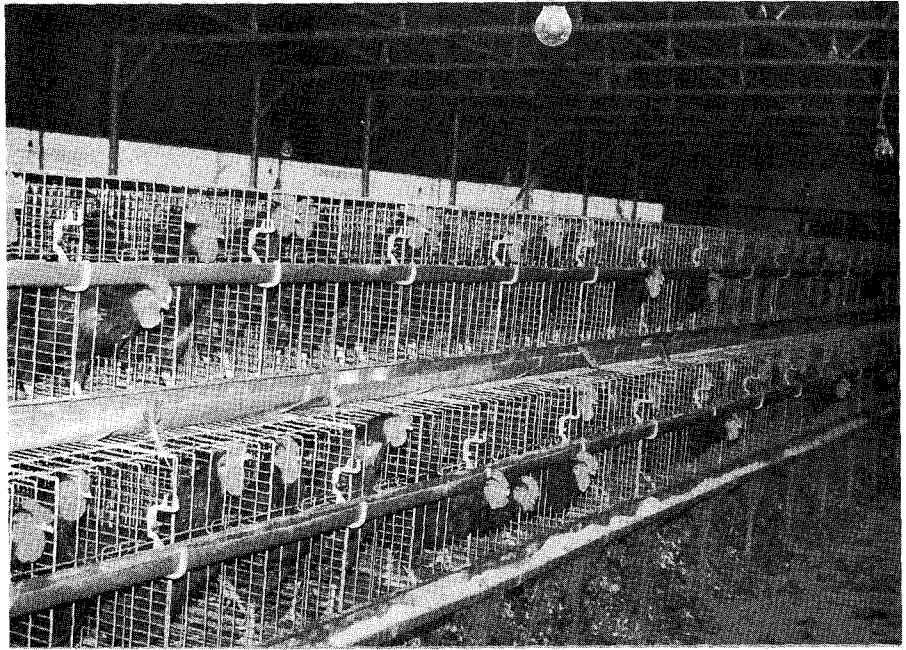
1997년 말, IMF 위기때 전국의 산란 부화장수는 12개였으나, 그 이후 9개 부화장으로 감소하였고, 2003년 현재 7개 부화장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향후 1~2개 부화장이 더 감소하여 5~6개의 부화장으로 축소되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화장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협의하여 적정 수수의 산란종계를 입식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의한 수수를 입식하여 경쟁한 결과이며, 또한 IMF 이후 5년 동안 소비시장이 정체된 상황(표1 참조)에서 채란업계가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한 결과, 부화장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표1. 산란사료 생산량

연 도	생산량(단위:톤)	증 감
1997	1,739,169	100.0
1998	1,658,457	95.4
1999	1,773,781	101.9
2000	1,785,381	102.7
2001	1,779,935	102.3
2002	1,801,811	103.6

<자료: 축산통계총람, 농협중앙회>

한편, 부화장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요 3개 부화장이 전국 생산의 75% 정도를 점유하게 되어 앞으로는 서로 협의하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여 정확한 통계에 의한 계획적인 산란종계 입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채란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육종산업의 판도변화와 우리나라의 채란업자들이 요구하는 난중·난질의 선호도, 부화장간의 영업력 차이 등이 품종의 판도 변화로 이어져 하이라인, 로만, 이사, 테트라, 닉칙 등 다품종 경쟁구도에서 하이라인, 이사, 로만 등으로 변화한 후 앞으로는 하이라인, 로만 2개 품종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계란등급제가 실시되고 계란의 품질(SE 없는 계란)을 중요시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육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품종의 판도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부화장에서는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산란종계 입식수수의 변화

표2에서 1997년 이후로 산란종계 입식수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산란종계 입식이 50만수보다 적은 다음 해에는 난가나 병아리 가격이

호황으로 이어지고, 55만수보다 많은 다음 해에는 불황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 산란종계 적정 입식수수는 50~55만수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도의 품종별 점유율을 보면 하이라인 약 30만수(60%), 로만 약 10만수(21%), 이사브라운 약 6만 5천수(13%), 닉칙 3만수(6%)로 입식되었으나 닉칙과 일부 이사브라운은 생산에 가담하지 않고 있어 전체 병아리 생산 가능 종계 수수는 45만수 수준에 이를 것으로

표2. 산란종계 입식수수

연 도	수수량(단위:수)
1997	587,220
1998	555,000
1999	635,500
2000	486,500
2001	598,700
2002	504,315

보고 있다. 한편 2002년 산란종계 입식통계를 분석해보면 2003년 4~5월 이후부터는 난가와 병아리 시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란종계업의 향후 전망

1) 산란종계 적정 입식수수의 변화

표3의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를 보면 1997년 이후 3천 5백만수 이상으로 입식된 반면 2001년과 2002년에는 3천만수 수준으로 입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통계수치는 2000년의 산란종계 입식이 50만수 이하로 적게 입식된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2002년도 통계수치는 왜 3천만수만 입식된 것일까 궁금해할 것이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일부 부도가 난 부화장들의 생산통계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는 3천 6백만수 이상이 입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산란실용계 입식이 3천 5백만수 이상이 되어서는 계속 난가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산란종계 적정 입식수수를 55만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며 50만수 이하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는 가금티푸스 때문에 55만수 수준에서도 난가가 좋은

표3. 산란실용계 입식수수

연 도	수수량(단위:천수)
1997	39,322
1998	35,275
1999	35,595
2000	35,697
2001	30,632
2002	30,650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접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좋아져서 더욱더 종계 적정 사육수수가 50만수 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45~50만수 수준의 종계를 기본으로 하여, 계란소비 증가추이를 보면서 종계 입식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병아리 주문 입란의 정착 필요

병아리를 주문 입란으로만 생산하여 판매해야 하며, 채란업체가 원하지 않는 병아리를 부화하여 중추농장에 입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병아리가 과잉되지 않게 하고, SG와 SE가 없는 병아리를 생산·공급하여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도록 해야한다. 산란종계의 강제환우를 금지하고, 아무리 병아리 가격이 좋아도 종계 사용주령을 68주령으로 제한하여 품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산란종계업이 나아갈 방향

채란업체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채란업자를 상대로 하는 산란종계업은 결코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정확한 통계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 생산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과 난가폭락으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는 끝내고,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요청하고 계획 생산함으로써 상생(相生)하는 안정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산란계 부화장 수가 이제 몇 군데 안되므로 서로 의논하여 산란종계 입식수수를 서로 조정함으로써 채란업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양계**